

시즌4
제4차

| 국어는 이감 |

이감 국어 모의고사

예비평가 지문 분석

[2021학년도 시준4 제4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

[16~20] 인문 : 외부 세계 회의론과 퍼트넘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인문 - 서양 철학 - 외부 세계 회의론

실재론, 외부 세계 회의론, 표상, 표상적 세계, 실제 세계, 독단론, 의미론, 퍼트넘, 사고 실험, 외연, 논변, 전통적 의미 이론

* 지문 분석

문단1 : 실재론과 외부 세계 회의론

1) 우리 외부에 실제 세계가 존재하고 우리의 감각 기관에 이상이 없는 한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한다는 입장을 **실재론**이라 한다. 이 입장은 우리의 상식과 잘 부합하지만, ...

⇒ ① 우리 외부의 세계가 실제 존재하고 ② 우리는 외부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이 실재론이다. 우리가 보는 하늘이 실제로 있고, 우리가 본 대로 파란색이라 하니 지극히 상식적이다.

2) 철학사를 보면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하는지 알 수 없다는 **외부 세계 회의론**이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

⇒ 그런데 ① 우리 외부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으며, ②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외부의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지 알 수 없다는 ‘외부 세계 회의론’도 많은 철학자들의 지지를 받아 왔었다. 실제로는 하늘이 없거나 내가 본 색이 진짜 하늘색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외부 세계 회의론’은 우리 상식과 크게 어긋나는 데..... 그럼에도 많은 철학자들의 지지를 받은 이유는 뭘까?

문단2 : 철학자들이 외부 세계 회의론자가 되는 이유

1)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온 자극을 토대로 우리의 정신에 펼쳐진 세계가 **실제 세계**와 같은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세계 사이에서 양자[→ ‘정신에 펼쳐진 세계’와 ‘실제 세계’]를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한다.

⇒ 그렇겠다. 우리는 눈, 코, 피부 등의 감각 기관을 통해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머릿속에서 세계를 구성한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세계와 실제 세계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세계 사이의 위치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하겠다.

2)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러한 인식적인 위치[→ 두 세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할 수 없다.

⇒ 그러나 우리 인간은 결코 두 세계 사이에서 두 세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인식적 위치에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두 세계 사이의 위치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감각 기관 밖에 존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우리는 감각의 복합체로서 마음에 그려지는 **표상(表象)**만을 볼 수 있을 뿐이므로 결코 실제 세계 자체에 들어갈 수 없다.

⇒ 우리는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통해 우리 정신 안에서 그려지는 상(象)인 표상만 볼 수 있을 뿐, 우리 외부에 실제 세계를 감각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겪을 수는 없다.

4) 우리는 **표상적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존재이다. 이 점은 실재론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많은 철학자들이 **외부 세계 회의론자**가 된 근본 이유이기도 하다.

⇒ 우리는 감각 기관의 자극을 토대로 우리의 정신에 펼쳐진 세계인 표상 세계와 실제 세계 사이가 아니라, 표상적 세계 속에만 갇혀 있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갇혀 있는 표상적 세계 밖에 실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상적 세계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다. 이것이 많은 철학자들이 외부 세계 회의론자가 되는 이유이다.

문단3 : 외부 세계 회의론에 대한 의미론적 해결 1

1) 일부 실재론자들은 표상적 세계와 실제 세계를 비교할 수 있는 인식적 위치에 있는 존재인 **신**에 의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 일부 실재론자들은 표상적 세계와 실제 세계 사이에서 두 세계를 비교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 대신에 신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통해 외부 세계 회의론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우리가 실제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믿으면 아주 손쉽게 외부 세계 회의론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2) 그러나 신의 존재 여부는 주관적인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장은 **독단론**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 누군가가 “신이 있다면 완벽한 존재일 거야. 완벽한 존재니까 세계를 있는 그대로 알 수 있고 또 우리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게 해 주겠지. 난 그런 신이 있다고 믿어.”라고 해 버리면 철학적 논의는 거기서 끝나는 거다. 논리, 토론, 증명.....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자신의 믿음만 내세우니 독단론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

3) 인식적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외부 세계 회의론을 논박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실재론자들 중 일부는 이를 **의미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 실재론자들도 외부 세계가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인식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일부 실재론자들은 인식적 증거가 없다고 해서 외부 세계가 실재한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의미론’을 통해 외부 세계가 실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했다.

4) 대표적으로 **퍼트넘**은 우리가 사용하는 **날말의 의미**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 세계에 묶여 있다고 주장**하였다.

⇒ 퍼트넘은 우리는 표상적 세계에 갇혀서 나갈 수 없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날말의 의미는 우리의 바깥에 존재하는 세계에 묶여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쓰는 날말의 의미가 외부 세계에 묶여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날말의 의미가 묶여 있는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역시 증명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날말의 의미가 외부 세계에 묶여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문단4 : 퍼트넘의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

1) 퍼트넘은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를 증명하려 하였다.

⇒ 퍼트넘은 날말의 의미가 바깥 세계에 묶여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구와 똑같은 쌍둥이 지구가 있다고 상상해 보자는 거다.

2) 지구에서 물이 존재하는 모든 자리에 현상적으로는 H₂O와 동일한 속성을 지니면서도 XYZ의 화학 구조를 지닌 물질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빼고 모든 점에서 지구와 똑같은 쌍둥이 지구가 있다고 하자.

⇒ 지구와 똑같은 ‘쌍둥이 지구’가 있다고 하자. 이 ‘쌍둥이 지구’는 지구에 물이 존재하는 자리와 똑같은 자리에 현상적인 속성이 물과 동일한 물질이 있다.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속성이 동일하다 하니 실험을 통해 관측할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성질도 같겠다. 섭씨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어 기체가 되고, 갈증을 느낄 때 마시면 갈증도 해소할 수 있겠다. 다만 화학 구조는 다르다 하니 ‘지구의 물’과 ‘쌍둥이 지구의 물’을 동일한 물질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3) 만약 ‘물’의 의미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다면 쌍둥이 지구의 철수가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마셔야겠어요.”라고 말할 때의 ‘물’의 의미와 지구의 철수가 동일한 말을 할 때의 ‘물’의 의미는 다를 이유가 없다.

⇒ 만약 ‘물’이라는 낱말의 의미가, 퍼트넘의 견해와 달리 말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다고 가정해 보자. 지구의 철수가 기대하는 물의 효과와 쌍둥이 지구의 철수가 기대하는 물의 효과는 같겠다. 즉 물의 의미가 다를 수 없겠다.

[팩트 짚기] 퍼트넘은 자신의 견해와 달리 ‘낱말의 의미가 머릿속에 있을’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자신은 A라고 주장하면서 ~A의 경우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A가 틀렸음을 보여 줌으로써 자신의 주장 A가 맞았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겠다.

- 4) 그러나 후자[→ 지구 ‘물’의 의미]는 H₂O라는 **외연**을 지시하는 반면 전자[→ 쌍둥이 지구 ‘물’의 의미]는 XYZ라는 외연을 지시하므로 **각각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 그러나 지구의 철수가 말한 ‘물’의 의미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H₂O라는 화학 구조로 이루어진 물질이란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쌍둥이 지구의 철수가 말한 ‘물’의 의미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XYZ라는 화학 구조로 이루어진 물질을 벗어날 수 없다. 각각의 물은 서로 다른 외연, 즉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구 ‘물’의 외연>		<쌍둥이 지구 ‘물’의 외연>
H ₂ O로 이루어진 물질	≠	XYZ로 이루어진 물질

- 5) 이로부터 퍼트넘은 낱말의 의미는 머릿속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이러한 사고 실험을 근거로 퍼트넘은 낱말의 의미는 외부 세계에 있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문단5 : 외부 세계 회의론에 대한 의미론적 해결 2

- 1) 이 사고 실험을 바탕으로 퍼트넘은 낱말의 의미가 그 낱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구속되어 있다는 전통적인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보이는 **‘논변’**을 전개한다.

⇒ 의미론의 전통적인 견해는 낱말의 의미가 그 낱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구속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즉 철수가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마셔야겠어요.”라고 말할 때 ‘물’의 뜻은 갈증에서 벗어나고픈 철수의 심리 상태에 구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퍼트넘은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을 통해 전통적 견해가 잘못되었으며 자신의 견해가 옳음을 논리적으로 따져 밝히고자 하였다.

- 2) 그는 **전통적 의미 이론**이 “어떤 낱말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특정한 심리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라는 ‘가정 1’과 “낱말의 의미가 그 낱말의 외연을 결정한다.”라는 ‘가정 2’의 두 가지 기본 가정을 지닌다고 보았다.

⇒ 퍼트넘은 전통적 의미 이론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 가정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 두 가정 중 한 가지라도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퍼트넘은 전통적 의미 이론의 견해를 반박할 수 있게 된다.

가정 1. 어떤 낱말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특정한 심리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가정 2. 낱말의 의미가 그 낱말의 외연을 결정한다.

- 3) ‘가정 1’에 따를 때, 지구의 철수와 쌍둥이 지구의 철수가 ‘물’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 둘은 동일한 심리 상태에 있다.

⇒ 전통적 의미 이론의 가정 1에 따를 때, 지구의 철수와 쌍둥이 지구의 철수가 물이라는 낱말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둘은 동일한 심리 상태에 있을 것이다.

[Rew] 낱말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특정한 심리 상태에 있다는 것이라는 가정 1은 문단4-3)의 가정과 같은 것이 되겠다. 이때의 ‘물’이란 낱말의 뜻은 ‘나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무엇’이 되겠다. 그러한 의미를 알고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마셔야겠어요.”라고 말하는 두 사람의 심리 상태는 동일할 것이다.

- 4) 그런데 지구의 철수가 말한 ‘물’의 외연과 쌍둥이 지구의 철수가 말한 ‘물’의 외연은 다르다.

[Rew] 그런데 문단4-4)에서 나온 내용처럼, 지구 ‘물’이란 낱말의 의미는 H₂O라는 외연을 지시하고, 쌍둥이 지구 ‘물’이란 낱말의 의미는 XYZ의 외연을 지시하므로 두 낱말의 외연은 다르다.

- 5) 따라서 ‘가정 1’과 ‘가정 2’는 충돌하게 된다.

⇒ 지구의 철수와 쌍둥이 지구의 철수는 각각 ‘물’이라고 말할 때, 같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 이는 그 둘이 알고 있는 ‘물’이란 낱말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뜻한다.[→ 가정 1] 따라서 두 철수가 말한 ‘물’의 외연도 같아야 한다.[→ 가정 2] 그런데 두 철수가 말한 ‘물’이란 낱말의 외연은 달랐다. 이는 가정 1과 가정 2가 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 6) 퍼트넘은 두 가정 중에서 ‘가정 1’을 포기함으로써 의미론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보았다.

⇒ 퍼트넘은 충돌하는 두 가정 중에서 가정 1을 포기함으로써, 전통적 의미 이론이 틀렸음을 보이고 올바른 의미론을 세울 수 있다고 보았다.

- 7) 즉 **낱말의 의미**는 그 낱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무관하며 **실제 세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Rew] 문단3-4)와 같이, 낱말의 의미는 그 낱말을 말하는 사람의 머릿속의 심리 상태가 아닌 외부의 실제 세계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 8) 이런 점에서 퍼트넘의 사고 실험은 **외부 세계 회의론에 대한 의미론적 해결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낱말의 뜻이 외부 세계에 달려있다는 퍼트넘의 사고 실험을 외부 세계 회의론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낱말의 의미가 외부 세계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외부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외부 세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면 그러한 외부 세계에 의미의 근거를 두고 있는 낱말로 우리가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법학 - 저작권법

대작, 저작권법, 저작물, 저작권,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 일신 전속권, 창작자 원칙, 강행 법규

예술 - 회화 - 개념 미술

개념 미술, 솔 르윗, 「월 드로잉」

* 지문 분석

문단1 : 대작 행위에 대한 저작권 문제

- 타인의 의뢰를 받아 창작을 대신해 주는 **대작** 행위로 인해 저작권 시비가 발생했을 때 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자와 의뢰인의 법적 관계를 다각도로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성공한 기업가나 정치가들의 자서전은 대개 돈을 받고 대신 써 주는 작가가 있다. 이진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철수가 이진희 자서전을 대신 쓴다면, 그 책의 저작권이 이진희한테 있는 것인지, 철수한테 있는 것인지 알쏭달쏭해진다. 이런 대작 행위로 인한 저작권 시비는 저작권법으로 해결하고 있단다.
- 그런데 **개념 미술**이라는 새로운 창작 방식이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작 행위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현행 저작권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대작 행위에 있어서 창작자와 의뢰인 중 누구를 저작자로 인정해야 하는지는 저작권법으로 해결한단다. 그런데 ‘개념 미술’에 해당하는 창작물은 저작권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단다. ‘개념 미술’이 대체 어떤 창작 방식이길래 문제를 야기할까?

문단2 : 저작권법이란?

-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된다. 이때 저작물은 실제 표현으로 나타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상이나 감정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팩트 짚기] 개념 미술의 저작권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저작권법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있다.
⇒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물에 대한 정의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되려면 반드시 ‘실제 표현’이 외부로 드러나서 누구라도 ‘아, 이게 책이구나, 노래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반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사상이나 감정’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가령, 어떤 작곡가 A가 구체적으로 어떤 곡을 머릿속으로 구상했다고 하자. 이때 작곡가 B가 A가 구상한 곡과 너무나도 흡사한 곡을 발표해서 히트를 쳤다 하더라도 A는 B에게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거다. 표현되지 않은 머릿속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 시점부터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권리로서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 저작권은 창작 시점부터 바로 발효된다는 거다. 이러한 저작권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된다니, 각각의 법률적 차이점을 잘 살펴보자.
[참조] 저작권은 저작물을 대상으로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다. 저작권과 유사하지만 다른 산업 재산권을 다루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 모두 공통적으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경우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즉 저작물은 특별히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된다. 한때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영화나 노래 등에 대한 불법 복제품을 마구잡이로 판매해 문화 발전을 저해한 시기가 있었다.

-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인 **저작 재산권**을 취득한 저작자는 저작물을 배포, 전시, 복제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저작 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하면 저작자는 더 이상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저작 재산권은 이름대로 저작물과 관련한 재산적 권리로 경제적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한때 유명 가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음원에 대한 수입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로 시끌벅적한 적이 있었다. 저작 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저작 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된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저작물의 공표, 성명 표시, 변경에 대한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 인격권을 통해 저작자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이와 관련된 저작물의 공표, 성명 표시, 변경에 대한 권리를 내용으로 한단다. 저작자의 명예 손상을 막는 데 목적이 있겠다.

[참조]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명예권으로 다시 나뉜다. ‘공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다. 즉 저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창작물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없다. ‘성명 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을 권리다. 만일 이감 모의고사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할 때 ‘이감’의 이름을 삭제했다면 이는 ‘성명 표시권’에 위배된다. ‘동일성 유지권’은 내용과 형식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타인의 허락 없이 변경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말한다.

- 저작 인격권은 특정 권리 주체[→ 저작자]만 향유할 수 있는 일신 전속권이므로 양도와 상속이 불가하며, 저작자 사망 시에는 소멸한다.

[주목]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의 결정적 차이는 ‘양도와 상속’ 가능 여부다.

⇒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니까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 반면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다. ‘인격’을 누군가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속한다는 의미로 ‘일신 전속권’이라 한다.

저작권	저작 재산권	-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 양도, 상속 가능
	저작 인격권	- 저작물과 관련된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 양도, 상속 불가능

문단3 : 대작 행위에 대한 저작권 적용

-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보는 **창작자 원칙**에 따라 창작 행위를 한 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계약이 창작자 원칙과 상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하나 마나 한 말이다.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되는 건 당연할 텐데, ‘당사자 간의 계약 문제’가 나오는 걸 보아하니, 문단1에서 말한 대작 행위로 인한 저작권 논의를 펼치려나 보다. 이때 쟁점은 ‘당사자 간의 계약’과 ‘창작자 원칙’이 서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 가령, 예술가 A가 의뢰인 B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작을 하고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B에게 일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자. 이후에 B는 양도받은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에 표시된 성명을 보고 저작자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구매자가 저작자를 B로 추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Rew] 저작 인격권은 저작물의 공표, 성명 표시, 변경에 대한 권리를 내용으로 하므로, 여기서 '표기된 성명'은 저작 인격권에 해당하겠다.

⇒ 문단1에서 들었던 예다. 예술가 A는 대필 작가 철수, 의뢰인 B는 이견회로 가정해 보자. 철수는 이견회의 자서전을 쓰기로 하고 모든 권리는 이견회에게 있다는 계약서를 썼다. 자서전은 드디어 출간되었고, 책 표지에 저자는 분명 이견회로 표기해 판매했다는 거다. 돈을 주고 이견회 자서전을 산 사람들은 당연히 이견회를 저작자로 보겠다.

3) 그런데 양도 이후에 A가 변심하여 자신의 창작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이 저작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 아, 그런데 이견회 자서전이 한류 흐름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어 수백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깜짝 놀란 철수는 그동안 자신이 직접 쓴 원고 등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견회 자서전의 창작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했다고 하자. 여기서 A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창작자 원칙'이 되겠다.

4) 이 경우,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저작 재산권은 B에게 양도됐기 때문에 A는 B에게 저작 재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주목] 저작 재산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 창작자 원칙과 상충'할 경우, 저작 재산권에 한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 창작자 원칙보다 우선함을 인정한다.

⇒ 당사자 간의 계약은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B에게 일괄 양도하는' 내용이었다. 저작권 중 저작 재산권은 문단2-3)에서 설명했듯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이견회 자서전의 판매 수익에 대한 권리 역시 이견회에게 귀속된다. 철수는 이견회에게 저작 재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안타깝다.

5) 그러나 저작 인격권의 양도 불가 조항은 사적 계약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강행 법규**이기 때문에 B의 성명 표시는 무효가 되고 A의 저작 인격권은 유지된다.

[주목] 저작 인격권은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다.

⇒ '강행 법규'의 의미는 지문의 맥락에서 읽어 내면 충분하다. '사적 계약 > 창작자 원칙'이었는데, '강행 법규 > 사적 계약'인 거다. 그러니까 저작 인격권은 강행 법규이기 때문에 이견회와 철수와 의 계약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호해 준다. 자서전에 표기된 저작자 이견회는 무효가 되고, 저작 인격권에 한해서는 철수를 저작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다.

<대작 행위에 관한 계약>

- 저작 재산권 ⇒ 계약의 내용을 인정함[→ 양도 ○]
- 저작 인격권 ⇒ 계약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양도 ×]

6) 이에 따라 [표시된 성명을 근거로] 저작자를 B로 추정하여 저작물을 구매한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진짜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저작물을 구매한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견회 자서전처럼 책 한 권쯤이야 별문제 안 되겠지만, 이게 몇천만 원 짜리 그림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겠다. 사실 이견 돈의 문제 이전에 신뢰의 문제다.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은 법적으로 풀이하면 '충분한 주의를 주어 저작자를 B로 추정하고 이를 신뢰하여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배반당하여 피해를 입은 자' 정도로 표현될 수 있겠다.

문단4 : 업무상 대작 행위에 대한 저작권

1) 한편 대작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창작자가 고용된 상황이라면 창작자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맥락 짚기] 개인 간의 대작 행위에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대작 행위에 대한 논의로 옮겨 가고 있다.

⇒ 그런데 창작자인 철수가 삼성에 고용된 상황이라면 창작자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과는 조금 다른 경우다.

2) 저작권법은 회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인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목] 여러 가지 저작물 중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더라도 저작 재산권은 양도되고, 저작 인격권은 강행 법규이기 때문에 양도되지 않는다.

⇒ 저작권법의 창작자 원칙에 벗어나는 내용이다. 왜 그럴까? 업무상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간주하면, 업무 진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게다. 이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저작물이라면 회사에 귀속되지 않겠다.

3) 창작자를 저작자로 한다는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업무상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는 저작권을 갖지 못한다.

[Rew] 문단3-1)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이 창작자 원칙과 상충'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저작물이라도 계약이 있다면 저작권은 인정되겠다. 드라마 작가와 제작사 같은 관계라면 이런 계약서를 작성할 게다.

4) 여기서 업무는 직접 지시받은 것뿐만 아니라 고용 목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업무로서 기대되는 것도 포함한다.

⇒ 2)와 관련해서, 무엇을 '업무'로 볼 것인가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저작권에 따른 시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문단5 : 개념 미술의 등장

1) 20세기 후반 현대 미술에서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미술품을 제작하는 것을 창작으로 보았던 기존의 입장에 반기를 든 개념 미술이 등장하였다.

[맥락 짚기] 문단1-2)에서 밝힌 '개념 미술'이라는 새로운 창작 방식에 있어서의 대작 행위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돌아왔다.

⇒ 기존의 현대 미술에 반기를 들었다 하니, 개념 미술은 '비물리적이고 비가시적인 미술품 제작을 창작'으로 보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2) **개념 미술**은 구체적 형상의 작품이 아니라 그것을 낳게 한 아이디어를 창작의 본질로 여긴다.

⇒ '창작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의문을 제기한 사조가 개념 미술이라는 거다. 이는 캔버스에 그려진 「모나리자」 작품이 아니라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아이디어가 창작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3) 개념 미술의 대표 작가인 **솔 르윗**은 1,200여 점의 **「월 드로잉」** 연작을 남겼다. 「월 드로잉」은 벽에 연필이나 분필 등으로 직선이나 곡선을 다양한 각도와 조합으로 긋는 형태의 그림이다. 그런데 르윗이 직접 제작한 것은 각각의 작품을 그리는 방법을 기술한 설명서와 작은 도안뿐이었다.

⇒ 구체적인 형상을 띠는 작품은 르윗이 직접 만든 게 아니다. 그가 직접 제작한 것은 작품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한 도안뿐이란 다. 그렇다면 '도안' 자체가 르윗의 '아이디어'고 창작의 본질이겠다.

4) 실제로 벽에 선을 그은 건 그가 '제도사'라고 명명한 고용된 기술자들이었으며, ...

⇒ 그렇다면 대작 행위에 있어서 르윗은 의뢰인이고, 고용된 기술자들은 창작자가 될 텐데.....

5) 르윗의 설명서는 미술품 대신 설명서에 들어 있었다.

⇒ 그렇다면 저작권이 보호할 저작물은 르윗의 '설명서'가 되겠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6) 설명서를 따르기만 하면, 한 작품이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그려질 수 있었으며 르윗 모르게 누군가 그려 놓은 것도 모두 「월 드로잉」으로 인정되었다.

⇒ 르윗의 견해에 따르면 창작의 본질은 ‘아이디어’에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벽에 그려진 그림은 르윗의 창작물이 아니다. 창작물은 르윗에 의하면 아이디어가 들어 있는 설명서니까. 그렇다면 아무나 르윗의 「월 드로잉」에 붓칠을 더해도, 기술자들이 설명서에 따라 무수히 많은 작품을 그려도 모두 「월 드로잉」으로 인정되었다는 거다.

7) 이는 유일무이한 원작의 권위를 무의미하게 만든 것으로서 원작의 진품성을 바탕으로 작동하던 미술품 시장을 교란시켰다.

⇒ 유일무이한 원작의 권위가 진품성이라는 거다. 미술품을 사고파는 시장에서 ‘이 작품이 진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가’ 하는 점은 몹시 중요하다. 그런데 르윗은 이런 ‘진품성’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으니, 미술품 시장으로서는 참 당황스럽겠다.

8) 그는 ‘아이디어가 미술을 만드는 기계’라고 말하며 아이디어의 실행은 부수적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수많은 개념 미술가들이 심미적인 사물로서의 미술이 아니라 언어적 개념으로서의 미술을 추구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 유일무이한 원작의 진품성을 르윗이 부정할 이유는 창작의 본질이 오로지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표현된 작품이 미술이 아니라, 머릿속 아이디어를 설명서에 말로 풀어놓은 것이 미술이니까 언어적 개념으로서의 미술이라는 거다.

문단6 : 개념 미술의 저작권법 문제

1) 개념 미술은 물질적 재료가 아닌 아이디어를 중시하여 미술품이 수집이나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 그렇겠다. 미술품 시장 입장에서는 원작의 진품성이 중요한데, 개념 미술의 작품들은 그것이 누구한테 귀속되는지, 즉 누구의 저작물인지 정할 수 없다. 개념 미술의 창작자 입장에서도 역시 창작의 본질이 아이디어이므로 미술품은 수집이나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다.

2) 또한 아이디어 생성과 달리 미술품 제작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 내듯이 진행하여 독창적이지 못함을 보임으로써, 물질적으로 표현된 것에서 예술의 독창성을 찾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 개념 미술의 의의가 되겠다. 개념 미술은 ‘물질적으로 표현된 것에서 예술의 독창성을 찾는 현실’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런 점에서 언어적 개념으로서의 미술이라는 거다.

3) 이처럼 개념 미술은 창작의 본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미술계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지만, 개념 미술의 창작 개념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부여하는 현행 저작권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Rew]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실제 표현으로 나타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상이나 감정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문단2-1)에서 언급했다.

⇒ 그렇다면 실제 벽에 그려진 「월 드로잉」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지언정, 르윗이 창작물이라고 주장할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겠다.

4) 또한 실제로 창작 행위를 한 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현행 법규를 고려할 때 개념 미술의 창작 방식에 따라 생산된 미술품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 현행 법규로는 르윗이 고용한 기술자들에게 「월 드로잉」의 저작권이 인정될 것이다. 새로운 창작 방식의 등장으로 저작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란이라는 얘기겠다.

이감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기술 - 진공 펌프 - 크라이오 펌프

기압, 대기압, 진공, 진공 펌프, 크라이오 펌프, 절대 온도, 냉각판, 활성화탄, 응결, 인력, 운동 에너지, 계, 온도, 응결점, 수소, 헬륨, 네온, 전기적 중성, 전자, 극성, 음전하, 양전하, 전기적 인력, 반데르발스 결합, 단위 질량, 비표면적

* 지문 분석

문단1 : 크라이오 진공 펌프

- 1) 기압이 대기압보다 낮게 유지되는 공간을 진공이라고 하며, 진공 용기 내부를 진공으로 만드는 장치를 진공 펌프라고 한다.
⇒ 흔히 ‘진공’하면 공기가 없는 상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떠올린다. 그러나 진공의 보다 정확한 정의는 특정 공간의 기압이 대기압보다 낮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측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진공 펌프 기술은 중요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많이 활용된다.
- 2) 대표적인 진공 펌프인 크라이오 펌프는 진공 용기 내부의 다양한 기체 분자들을 극저온의 펌프 내부로 포집함으로써 진공 용기 내부의 기압을 떨어뜨려 진공을 만든다.
⇒ 다양한 진공 펌프가 있으나 보다. 그중 크라이오 펌프의 대략적인 작동 원리다. 진공 용기 내부를 아주아주 낮은 온도로 만들어 기체 분자를 모으면 용기 내부의 기압이 떨어진단다. 그럼 대기압보다 용기 내부의 기압은 낮게 유지되니까 진공이 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과정을 살펴보자.

문단2 : 크라이오 펌프의 구조와 작동 원리 1

- 1) 원통형의 크라이오 펌프 내부에는 영하 193℃에 해당하는 절대 온도 80K까지 냉각되는 80K 냉각판과 영하 258℃에 해당하는 절대 온도 15K까지 냉각되는 15K 냉각판이 설치되어 있고, 15K 냉각판 밑면에는 활성탄이 코팅되어 있다.
[맥락 짚기] 크라이오 펌프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읽어 보면 좋겠다.
⇒ 온도가 각기 다른 두 개의 냉각판과 코팅된 활성화탄이 있다. 문단1-2)에서 ‘극저온’을 언급했는데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낮은 온도다.
- 2) 펌프 윗면은 호스를 통하여 대기압 상태의 진공 용기와 연결되어 있다.
⇒ 분명 ‘진공 용기’라면 대기압보다 낮은 기압이어야 할 텐데, 대기압 상태라니? 아직 크라이오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즉 ‘아직은’ 대기압 상태의 진공 용기인 게다. 이런 진공 용기와 펌프가 호스를 통하여 연결돼 있다니, 펌프와 진공 용기는 크라이오 펌프에서 따로 위치해 있겠다.
- 3) 크라이오 펌프가 작동하면 냉각판들이 냉각되어 펌프 내부 기체의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기체 분자는 액체로 응결되면서 분자의 개수가 줄어든다.
[맥락 짚기] 크라이오 펌프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 과정에 따라 이해해 보자. 크라이오 펌프가 작동을 시작하면, ① 냉각판들은 이쯤대로 냉각이 된다. 이로 인해 펌프 내부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② 기체 분자는 액체로 응결된다. ‘응결’은 여름날 차가운 물을 따른 컵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것처럼, 공기가 이슬점 이하로 냉각되어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응결로 기체 분자의 개수는 당연히 줄어들겠다.

- 4) 그에 따라 펌프 내부의 기압이 하강하면
⇒ 응결로 기체 분자의 개수가 줄어들면 따라서 ③ 기압도 낮아진다. 왜 그럴까? 기압은 기체가 만드는 압력이다. 응결로 기체 분자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펌프 내부의 기압도 낮아진다.
- 5) 펌프 내부와 진공 용기 내부 사이의 기압 차에 의해 진공 용기 내부의 기체 분자들이 크라이오 펌프 내부로 유입되어 포집되고 진공 용기 내부의 기압은 대기압보다 낮아져 진공이 된다.
⇒ 펌프와 진공 용기가 호스로 연결되어 있음은 2)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펌프 내부의 기압이 낮고, 진공 용기는 대기압 상태이므로 기압 차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④ 진공 용기에 있던 기체 분자들은 펌프 내부로 이동해 포집된다. 진공 용기 내부의 기체 분자들이 펌프로 유입된 결과 ⑤ 진공 용기 내부의 기압은 대기압보다 낮아져 진공이 되겠다.

문단3 : 크라이오 펌프의 작동 원리 2

- 1) 크라이오 펌프 내부로 유입된 기체들은 80K 냉각판 및 15K 냉각판과 순차적으로 접촉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는 80K 냉각판에, 일부는 15K 냉각판에 액체로 응결되어 포집된다.
[참고] 유입된 기체들은 80K 냉각판, 15K 냉각판에, 온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촉하여 응결된다.
⇒ 크라이오 펌프 내부에는 절대 온도 80K의 냉각판과 15K 냉각판 두 개가 있다고 설명한 문단2-1) 내용을 떠올려 보자. 유입된 다양한 기체들은 종류에 따라 ⑥ 80K 냉각판에 일부가, 15K 냉각판에 일부가 응결된단다. 왜 온도가 각기 다른 냉각판에, 그것도 일부만 응결될까?
- 2) 이때 기체의 종류에 따라 액체로 응결되는 위치가 달라진다.
⇒ 대강 짐작이 된다. 펌프 내부로 다양한 기체들이 유입되었을 게다. 따라서 기체의 종류에 따라 응결되는 냉각판 역시 달라진다는 얘기다.
- 3)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크기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
⇒ 기체의 종류에 따라 냉각판에 응결되는 위치가 달라지는 이유는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과 관계있나 보다. 이러한 분자들 사이에 당기는 힘인 인력은 물질의 종류마다 다르며.....
- 4)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계의 온도에 비례한다.
⇒ 그러나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물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온도가 높을수록 운동 에너지도 커진단다. ‘기체의 종류에 따라’ 응결되는 냉각판은 달라졌지만,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종류에 상관없이 온도에 비례한다. 기체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변수가 있고,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변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다.

분자들의 인력 ⇨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름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 계의 온도

- [참고] ‘계’는 열역학에서 전체 우주 공간 중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현재 고찰하고 있는 한 부분을 말한다. 계는 외부와의 물질 및 에너지의 교환 가능성에 따라 열린계, 닫힌계, 고립계로 나뉜다.
- 5) 기체 상태는 계의 온도가 충분히 높아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이길 만큼 커서 분자들이 자유롭게 운동하는 상태이다.
⇒ 그렇겠다.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온도는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또한 분자들이 자유롭게 운동하려면,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보다 운동 에너지가 커야겠다.
 - 6) 이때 계의 온도가 하강하여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분자들 사이의 인력을 이길 수 없을 만큼 작아지면 기체 분자들이 서로의 인력에 의해 끌어당겨져 액체로 응결된다.

⇒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도 작아진다. 그럼 ‘운동 에너지 < 인력’이 되어 기체 분자는 액체로 응결된다. 지문이 친절해서 술술 읽힌다. 이때 ‘계’는 지문의 맥락에서 크라이오 펌프 내부로 이해하면 충분하다.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 인력 ⇨ 기체 상태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 인력 ⇨ 응결

7)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클수록 기체 분자의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인 응결점이 높아 더 빨리 응결이 일어난다.

⇒ 펌프 내부로 유입된 기체 분자는 접촉한 냉각판의 온도가 자신의 응결점 이하일 때 액체로 응결된다. 문단3-4)에서 설명했듯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기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온도’에 비례했다. 그러나 ‘같은 온도’에서는 기체의 종류에 따라 응결점은 달라진다. 즉, 분자들의 인력이 클수록 응결점이 높아 기체는 더 빨리 액체로 변한다.

분자들의 인력↑ ⇨ 기체 분자 응결점의 온도↑

8) 크라이오 펌프 내부에 유입된 기체들 중 수증기처럼 응결점이 80K 이상인 기체 분자들은 80K 냉각판과 접촉하면서 응결된 뒤 80K 냉각판에 얼어붙어 포집되며, 산소 기체나 일산화 탄소 기체처럼 응결점이 80K보다 낮은 기체들은 15K 냉각판과 접촉하면서 응결된 뒤 15K 냉각판에 얼어붙어 포집된다.

[주목] 각기 다른 냉각판에 다른 종류의 기체 분자들이 응결되는 것은 온도, 운동 에너지, 인력, 응결점의 관계다.

⇒ 3)에서 인력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그러니까 인력이 커서 응결점의 온도도 높은 기체들은 80K 냉각판에, 인력이 이보다 작아서 응결점의 온도도 낮은 기체들은 15K 냉각판에 응결되는 거다.

문단4 : 활성탄의 반데르발스 결합

1) 진공 용기에서 크라이오 펌프 내부로 유입되는 기체 분자들 중 수소, 헬륨, 그리고 네온 기체는 분자들 사이의 인력이 매우 작아서 냉각판과의 접촉에 의해 온도가 하강해도 액체로 응결되지 않는다.

[맥락 짚기] 문단3-1)에서 크라이오 펌프 내부에 유입된 기체들이 종류에 따라 80K 냉각판에 일부가, 15K 냉각판에 일부가 응결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나 보다.

⇒ 펌프 내부에 유입된 기체들 중 일부만 냉각판에 응결되는 이유는 수소, 헬륨, 네온 등은 인력이 매우매우매우 작아서 응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란단. 즉 15K까지 온도를 낮추고 낮춰도 응결점까지 도달하지 않는 녀석들이 있다는 얘기다. 그럼 어쩐다?

2) 이들은[→ 수소, 헬륨, 네온 기체] 15K 냉각판 밑면에 코팅되어 있는 활성탄에 흡착시켜 포집한다.

[Rew] 문단2-1)에서 설명했듯이, 15K 냉각판 밑면에 활성탄을 코팅한 이유다.

⇒ 활성탄은 목재 등을 화학 처리한 건데 고기 굽는 숯과 비슷하게 생겼다. 인력이 작은 기체는 활성탄에 흡착시킨다는데 어떤 원리인지 좀 더 읽어 보자.

3) 기체 분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내부에서 전재들이 무작위의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몰리면서 분자가 전기적 중성을 유지하면서도 극성을 띠게 되어 전자들이 몰린 쪽은 음전하를, 그 반대쪽은 양전하를 띠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전기적 중성을 띠는 물체는 양전하와 음전하의 개수가 같고, 전자가 고르게 퍼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전자들이 쏠리게 된다면 기체 분자가 극성을 띠게 되겠다.

4) 이때 기체 분자의 양전하를 띠는 부위가 활성탄 표면에 접근하면 활성탄 표면 안쪽의 전자들이 표면으로 끌어당겨져 활성탄 표면이 음전하를 띠게 된다.

⇒ 그렇겠다.

5) 그 결과 활성탄 표면과 기체 분자들 사이에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서로 결합한다. 이처럼 순간적으로 형성되는 극성 분자와 이에 의해 극성이 유도되는 분자 사이의 전기적 결합을 반데르발스 결합이라고 한다.

⇒ 기체 분자의 양전하를 띠는 부위와 활성탄 표면의 음전하를 띠는 부위가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현상을 반데르발스 결합이라고 한다. 그 결과 인력이 아주 작은 기체 분자라도 활성탄 표면에 잘 흡착되겠다. 이처럼 펌프 내부로 들어온 기체 분자는 인력의 크기에 따라 응결되거나 흡착되겠다.

냉각판 응결	• 인력이 큰 기체 분자 • 접촉한 냉각판 온도가 기체 분자의 응결점 이하일 때
활성탄 흡착	• 인력이 아주 작은 기체 분자 • 반데르발스 결합

6) 고체 표면과 기체 분자 사이의 반데르발스 결합은 고체 입자의 단위 질량당 표면적인 비표면적이 클수록, 그리고 계의 온도가 낮을수록 잘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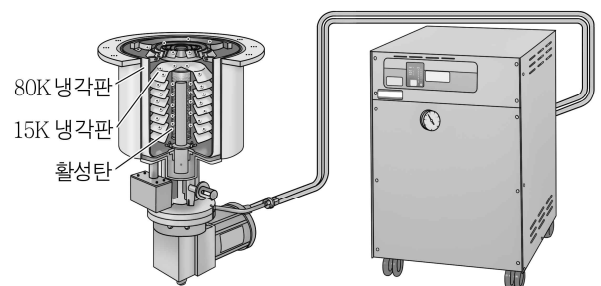
⇒ 단위 질량당 표면적이 크려면 같은 질량이라도 매끈한 모양보다는 최대한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면 되겠다. 펌프 내부는 이미 절대 온도 상태니 극저온이다.

고체 입자의 비표면적↑, 계의 온도↓ ⇨ 반데르발스 결합↑

7) 활성탄은 미세한 구멍이 무수히 많은 다공질 구조를 가져 비표면적이 매우 넓을 뿐 아니라 15K 냉각판에 의해 영하 258℃까지 냉각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 헬륨, 네온 기체들과 반데르발스 결합을 형성함으로써 이들을 흡착하여 포집한다.

⇒ 6)의 상술이다. 펌프 내부는 반데르발스 결합이 잘 일어날 환경이라는 거다. 펌프가 잘 작동하면 펌프와 연결된 용기는 진공 상태가 되어 산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참고] 문제를 풀며 궁금했는데 크라이오 펌프는 이렇게 생겼다.



[37~41] 현대시 : (가) 이용악, 「오랑캐꽃」

* 작품 평가

일제 강점기, 삶의 터전을 잃고 북방을 유랑하는 민족의 설움을, 고려 군대에 삶의 터전을 빼앗겼던 여진족의 설움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 작품 분석

서두 :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의 유래

—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머언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드리운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

- 1) 여기서의 ‘오랑캐’는 북방의 여진족이라고 보면 무난하겠다. 오랑캐꽃은 그 모습이 여진족의 머리채와 유사하여 생겨난 이름이라는 얘기를 시의 서두로 제시하고 있다.
- 2) 오랑캐꽃을 ‘너’라고 지칭하여 인격화하고 있다.

1연 : 고려의 군사에게 쫓긴 오랑캐

아낙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 [고려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부녀자와 족장도 버린 채 달아났다고 하더라.
도래쌈(= 빙 돌아서 흐르는 샘물)도 멧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 갔단다
→ 살던 터전을 모두 버리고 두만강 건너편으로 쫓겨 갔다더라.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 고려의 장수가 무서운 기세로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힘도 제대로 써 보지 못하고] 도망을 쳤다더라.

2연 : 긴 세월이 지남

구름이 모여 골짜 골짜를 구름이 흘러
백 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 긴 세월이 흘렀다.

3연 : 오랑캐꽃에 대한 연민과 동정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 오랑캐꽃은 오랑캐와는 실제로 아무 관계도 없지만
오랑캐꽃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 털로 만든 미투리. 미투리는 삼이나 노 따위로 짚신처럼 삼은 신을 말한다.)도 모르는 오랑캐꽃
→ 오랑캐의 습속과도 아무 관련이 없는 오랑캐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줄게
→ 두 팔로 [오랑캐꽃에 위협적으로 내리쬐히는] 햇빛을 막아 줄게.
울어 보렴 목 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꽃
→ [비록 네가 오랑캐는 아니지만, 너의 이름이 오랑캐와 관련이 있으니, 고려 군대에 쫓겨 삶의 터전을 잃었던 설움과 슬픔을 표출하여] 목 놓아 울어 보려무나.

정리

- 1) 1, 2연은 고려 군대에 쫓겨 간 오랑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3연에서 화자가 오랑캐꽃을 청자로 설정하여 ‘목 놓아 울’라고 하고 있으니…… 화자는 오랑캐꽃과 오랑캐의 과거사를 조용시키고 있는 셈이다.

- 2)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화자가 오랑캐꽃에 대해 동정과 연민을 보이는 것은, 일제의 억압 탓에 삶의 터전을 잃고 북방을 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오랑캐꽃→오랑캐→우리 민족의 연결 고리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고 봐야겠다.
- 3) 작품에 나오는 ‘고려 장군님’을 고려의 윤관 장군으로, ‘오랑캐’를 윤관 장군의 북벌로 인해 북방으로 쫓겨난 여진족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면 오랑캐는 우리 민족과 적대하는 존재인 셈인데, 이 시는 그 오랑캐에게 동정적이다. 시인의 시선과 관점에 유의해서 시를 이해해 보자.
- 4) 일제에 의해 나라를 잃고 남의 땅을 떠돈 우리 민족 역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쫓겨 다니는 ‘오랑캐’였을지도 모른다. 시인은 편협한 민족주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부당하게 빼앗긴 자들을 향한 공감과 연민의 태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주제 : 나라를 잃고 북방을 유랑하는 민족의 설움

* 수록 지문 평가

작가 김상헌이 1614년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샘물을 얻기 위해 인왕산에 다녀온 사연을 기록한 기행문이다.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들처럼 취미로 등산을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산을 오르는 일은 특별한 경험이었고, 따라서 그 경험을 글로 남긴 '유산기' 형식의 글이 많이 남아 있다. 「유서산기」는 17세기 중엽 한양의 모습 및 인왕산의 풍경을 잘 알려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 어느 정도 전란의 상흔은 회복되었음에도 광해군의 통치 아래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은 현실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는 글이다.

* 수록 지문 분석

토막1 :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려고 샘물을 찾아 서산[→ 인왕산]에 올라가다

갑인년[→ 1614년. 광해군 5년] 가을에 어머님께서 눈병이 났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서산(西山)[→ 지금의 인왕산. 서울 도성 안 서쪽에 있어 서산이라 불렀다.]에 신통한 샘이 솟아나는데 병든 사람이 머리를 감으면 이따금 효험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마침내 날을 잡아 산에 올랐는데, 큰형님과 나와 광찬과 광소가 함께 따라갔다.

⇒ 김상헌은 병자호란 당시 척화파의 대표로 잘 알려진 인물인데, 그는 어머니의 병을 고칠 샘물을 구하기 위해 직접 산을 오르는 효심의 소유자이기도 했나 보다.

토막2 : 인왕동에서 소이상의 옛집을 보며 생각에 잠기다

인왕동에 들어가서 고(故) 양곡 소이상이 살던 옛집을 지났는데, 이른바 청심당(淸心堂), 풍천각(風泉閣), 수운헌(水雲軒)[→ 건물의 이름에 마음을 맑게 한다거나 바람, 샘, 물과 구름 등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집 주인이 자연으로 돌아가 은거하려 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으로 불리던 것들이 지도리(=돌쩌귀, 문장부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는 썩고 주춧돌은 무너져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다.[→ 살던 사람이 떠나고 집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다는 말이다.] 양곡은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어 이미 귀하게 된 데다가 부유하였으며, 또한 심장(心匠, 독특한 구상이나 설계, 또는 그것에 빠어난 사람)이라고 칭해졌으니, 집을 지으면서 교묘함과 화려함을 극도로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교유하였던 선비들도 모두 한때 문장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이 읊었던 것 중에는 필시 기록되어 전해질 만한 것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채 백년도 못 되어서 이미 한둘도 남아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 선비가 믿고서 후세에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지 않은 것이다.[→ 선비들이 지은 집과 그들이 지은 글들은 백 년도 못 되어 거의 다 사라져 버렸다. 그렇다면 선비가 후세를 위해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훌륭한 인품과 덕행을 말하는 것이리라. 선비라면 눈에 보이는 집을 짓거나, 오래지 않아 사라질 글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나의 행동을 살피고 남을 위해 덕을 베풀며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중략)

토막3 : 인왕산 남쪽 봉우리에 올라 경치를 바라보고 감회에 젖다

큰형님과 더불어 남쪽 봉우리에 오르니, 산봉우리 아래에 술 공간이 있었다. 두 채를 서로 마주 보게 지어 놓았는데 십여 칸 정도가 서로 이어져 있었다. 술 냄새가 퍼져 나가 새들조차 모여들지 않으니, 모르겠다만 얼마나 많은 광약(狂藥, 사람을 미치게 하는 약. '술'을 달리 이르는 말)이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온통 취하게 하였던가.[→ 술 냄새가 널리 퍼지는 상황을 활용하여 풍기가 문란해진 세태를 한탄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광해군 때의 국가 기강이 문란해진 상황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된다.]

앞쪽으로는 목멱산(木覓山, 남산)이 보이는데 마치 어린아이를 어루만지는 듯하였다.[→ 서울의 서쪽에 있는 인왕산에 올라가 인왕산보다 낮은 남산을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남쪽으로는 성[→ 한양 도성]이 산허리를 감고 구불구불 이어진 것이 마치 용이 누워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아래에 어찌 용같이 훌륭한 인물이 누워 있겠는가. 지금 반드시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용같이 훌륭한 인물이 없을 것이라는 말에서 광해군을 훌륭한 군주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짐작해 볼 수도 있다.] 그 아래로 수많은 여염집(=일반 백성의 살림집)의 기와지붕이 땅에 깔려 있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이 마치 물고기의 비늘과 같았다. 임진년[→ 1592년]의 난리를 치른 뒤 이십삼 년이 지나 백성들의 수가 날로 불어나 집들이 많기가 이와 같이 성대하게 되었다. 그중에는 남자들의 숫자가 수십만 명을 밀돌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요순(堯舜, 고대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을 도와 당우(唐虞) 시대의 태평성대[→ 요임금과 순임금이 이룬 이상적인 태평 시대]를 이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한갓 나라의 힘은 더욱 약해지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초췌해지고 변방의 방비는 더욱 위태롭게 돼 지금과 같이 쇠퇴해지는 데 이르게 하였다. 어찌하여 저 푸른 하늘은 인재를 내려 주는 것이 이렇게도 인색하단 말인가. 아니면 하늘이 인재를 내려 주긴 했는데 쓸 줄을 몰라서 그런 것인가. 어찌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운명 탓이 아니겠는가.

⇒ 인왕산 남쪽 봉우리에 올라 한양 시내를 바라보면, 전쟁 후 인구는 늘어났으나 나라를 위해 일할 인재가 부족함을 한탄하고 있다. 나라가 지금처럼 힘이 없어지고 살기 어려워진 것이 모두 인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태평성대를 만들어 낼 인재가 부족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인재가 있어도 쓸 줄 모르는 조정도 문제임을 던지시 이야기한다.

경복궁의 뜰은 텅 비었고 성은 허물어지고 나무는 부러졌으며 용루(龍樓)[→ '태자궁'이나 '세자궁'을 달리 이르는 말이지만 다음에 나오는 '봉각'과 대구를 이루어, '용무늬가 장식된 누각'이라고 볼 수도 있다.]와 봉각(鳳閣, 봉황 무늬가 장식된 누각)은 무성한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조선의 궁궐 중에서 제일 중심이 되던 경복궁이 임진왜란 당시 불타고 폐허로 남아 있는 모습이다. 임금이 살던 궁궐이 폐허가 된 것도 서러운데, 그것을 복구할 국력이 없어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단지 경회루 연못에 있는 연잎이 바람에 뒤집히면서 저녁 햇살에 번쩍이는 것만 보였다.[→ '연잎'은 앞의 '무성한 잡초'와 함께 경복궁이 왕실의 중심이 되는 궁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드러내는 자연물이다.] 앞에서는 어진 인물을 막고 나라를 그릇되게 하여 전쟁을 불러들이고 온갖 고난을 겪게 하였으며, 뒤에서는 부추기고 이간질하면서 임금께 아침을 하여 간사한 말로 행해지고 법궁(法宮, 왕이 거처하는 공식적인 궁궐 가운데 으뜸이 되는 궁궐, 경복궁을 말한다.)을 황폐해지게 하였으니.[→ 임진왜란 이후 조선 왕실은 황폐해진 경복궁을 버려두고 동쪽에 위치한 창덕궁과 창경궁에 거처했다.] 간신의 죄를 어찌 이루 다 처벌할 수 있겠는가.

⇒ 글쓴이는 폐허로 방치된 경복궁의 모습을 통해 왕실의 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물론, 그 잘못된 간신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광해군에 대한 비판도 은근히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김상헌은 이후에 인조반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데, 그러한 김상헌의 행보는 이미 조정의 현실을 개탄하는 이 장면에서 암시되었던 셈이다.

[42~45] 현대소설 : 황석영, 「아우를 위하여」

* 수록 지문 평가

시대 상황과 관련된 우의적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한다. 교실을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의미를 갖는 상징적, 우의적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1인칭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면 성장 소설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편하게 읽힌다.

* 수록 지문 분석

토막1 : 영래의 폭력적 위협 아래 진행된 자치회의 결과 영래가 반장이 된다

영래가 은수에게 몽둥이를 주워 오라고 명령하니 그놈은 껌싸게 뛰어나가 각목(= 모서리를 모가 나게 깎은 나무) 하나를 주워 왔다. “종하, 일루 나와.” 비실비실 웃으며 앞으로 나온 종하에게 영래가 말했다. “웃지마 인마, 이걸 갖구 수틀리게 놀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무조건 조기는(= 마구 두들기거나 패는) 거야. 알았지?” 종하는 가마니를 깔지 않은 흙바닥 통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한국 전쟁 직후이다. 당시의 교실 환경은 이런 경우가 많았다.]를 각목을 들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녔다. “오늘부터 너는 기율부장이다.” “뭐야 그게..... 반장하군 다른가?” “인마 중학교 교문 앞에도 못 가 봤어? 완장 차구 서서 잘못된 애들 벌주는 거 말야.” 은수가 항의했다. “그럼 나는 뭐야, 넌 뭐구.....” “이 새끼나는 의장이잖아. 종하는 기율부장, 너는 말이지 총무다.” “반장보다 높은 거냐?” 아이들이 킁킁.

⇒ 영래 패거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완장을 하나씩 차지한다. 각목을 들고 어슬렁거리며 폭력으로 위협하고 있으니, 민주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종하는 내 앞을 지나며 공연히 똑바로 앉으라면서 허리띠를 각목으로 꼭 찢었다. 나는 등에 힘을 주고 뻗뻗이 긴장해서 앉아 있었다.[→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몸이 굳은 모습이다.] 그때 석환이가 안으로 폭삭 기어들어 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말야..... 씨름 대회는 반대한다.”[→ 기가 죽은 태도이기는 하지만, 석환이는 나름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다. 참고로, 석환이는 지난 학기의 반장이었다.] 아이들이 왈차지껄하며 석환이 쪽에다 불평을 제각기 터뜨렸다. “혼자 잘난 체하지 마라 짜식.” “누가 네 명령이나 듣겠단냐.” “영래야, 때려 줘라.” 영래가 교탁을 쿵 때리며 말했다. “새끼들, 조종하라니까.” 임종하가 각목을 땅에다 쿵쿵 찧으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아이들이 잠잠해졌다.[→ 아이들은 석환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뒷 대목에서 석환이는 씨름 대회가 아니라 자습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씨름 대회’는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자습’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이겠다. 영래는 폭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반대하는 석환이의 목소리는 호응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석환이는 가까스로 말할 기운이 났는지 아까보다 더욱 또렷하게, “선생님이 자습을 한 다음에 자치회를 하라구 그랬어. 또 혼자서 마음대로 학급 간부를 지명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 석환이는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무서운 폭력과 유혹적인 보상을 동시에 내세우는 영래와, 많은 아이들이 바라는 바와는 동떨어진 원칙을 내세우는 석환이의 이러한 대립이 ‘중략’ 이전의 가장 주요한 갈등이다.] 바보 같은 놈들이 설쳐 대는 꼴을 보니 나도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영래만 한 통솔력도 없는 터에 모두들 나더러 공부 좀 하라구 으스스하다고 할 거였다. 그 전 학교에서처럼 발언권을 얻어 동의와 재청을 받고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하는 재미있던 판국과는 전혀 판판이어서, 까짓 거 입 다물고 구경이나 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나’는 영래 일당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반대하는 대신 침묵을 지킨다. ‘공부 좀 하라구’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의 태도는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비겁한 지식인의 태도를 떠올리게

게 한다.] 몇몇 절반장 애들은 불만이 있어 보였으나 교실 뒤에 버티고 선 종하 쪽을 연방 돌아보기만 하는 거였다. 영래가 씨익 웃었다. “응 좋아, 애들한테 물어보자, 애들아 씨름 대회를 뒤로 미루고 자습할까?” 반 아이들이 웅성대며 항의하거나, 재삼 석환이를 욕하기 시작했다. “대신에 자치회를 먼저 하자. 너희들 석환이가 반장 노릇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한 사람의 손도 올라가지 않았고 뒤늦게 들었던 애들도 대부분 아이들의 드높은 불만의 분위기에 위축되어 슬금슬금 내려 버렸다.[→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 또 영래에게 호응하는 다른 아이들의 태도 때문에 기가 죽은 아이들] “다음은 내가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절반 이상이 손을 들었고 두 번 다 손을 안 든 애들도 많았다.[→ 자신의 의견을 차마 밝히지 못한 ‘침묵하는 다수’가 존재했다는 말이다.] “봤지? 자치회는 이걸루 끝났다.” “그래, 이영래가 오늘부터 우리 반 급장이다.” “반대하는 놈들은 우리 반이 아니야.” 영래는 만족에 가득 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 영래 일당이 반 아이들을 폭력으로 위협해서 영래가 반장이 되었다. 주목할 것은 꼭 영래의 위협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영래에 호응하는 수많은 아이들에 의해서, 나아가서는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출하지 않은 아이들에 의해서 영래가 반장이 된 것이다.

⇒ 이는 당대 사회에 대한 우의로 볼 수 있다. 작가는 교실의 풍경을 통해, 위로부터의 억압뿐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추종과 다수의 비겁한 침묵이 독재 권력을 작동·유지시키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토막2 : 영래는 교묘하게 아이들을 조종하며 형포를 부렸고, 반 아이들은 영래에게 동조하거나 무관심하게 그를 방관한다

영래가 반장이 되고 나서 나는 학교에 가는 일이 시큰둥해진 느낌이었다. 무관심했던 내게도 불편한 사태가 자주 벌어지게 되었는데, 영래가 너무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랬기 때문이다.[→ 무관심하게 침묵하던 ‘나’에게도 불이익이 닥쳐오기 시작한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이유로 독재를 외면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기 마련이다.] 은행 지점장의 아들이나 공장장 아들, 극장, 양조장집 아들 같은 네댓 명의 부잣집 애들은 특히 괴로움을 많이 받았었다. 그 애들은 뭔가 좋은 것들, 이룰테면 장난감, 극장표, 돈 같은 것들을 갖다 바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내일까지 가져와.” 한마디면 통하는 모양이었다. 대부분의 다른 애들은 평소부터 그 애들에게 반감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영래나 종하나 은수의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 그 애들이 교실 뒤에서 엎드려뺨쳐를 하고 궁둥이를 맞는 걸 통쾌해했던 것이다.[→ 아이들 사이에서, 경제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영래 일당은 부잣집 아이들을 혼내 주는 식으로 가난한 아이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것이다. 반장으로서 아이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환심을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부잣집 애들도 나중에는 그리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청소 당번을 제외받았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애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애들을 혼내 주도록 저 세 아이들 중 아무나에게 선물을 하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영래 일당은 뒤에서는 부잣집 아이들에게 유리하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교묘한 술책으로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 아이들 모두를 자기편으로 만든 것이다.]

있으나 마나 한 부반장으로 영락한 석환이도, 나도, 하여간에 좀 영리한 애들은 끼리끼리 소곤소곤 어린이 잡지나 돌려 보면서 그 애들의 노는 꼴에 전혀 상관하지 않으려 애썼다.[→ 석환이와 ‘나’,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영래 일당의 폭력에 대해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방관했다. 불의한 시대 현실을 외면하는, 나약한 지식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느 정도 기가 죽었으나 그래도 아직은 영래를 신뢰했는데 그는 아이들을 재미있게 하고 동시에 무서운 존경을 일으키게 하

는 데 재주가 비상했던 것이다. 영래의 제의로 우리는 두어 차례의 모금을 했었다. 한 번은 담임 선생 메뚜기네 아기의 돌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서였고, 다음엔 청소 도구를 마련한다는 구실이었다. 판단이 부족했던 우리가 어렴풋이 느끼기에도 금액이 좀 과했던 것 같았다.[→ 영래 일당이 돈을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이 거둬서 착복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삼 분단장인 동열이의 머리가 터졌던 건 바로 그 일 때문이었다. 그 애[→ 동열이]가 쭈군거린 얘기를 들어 보면 거둔 돈의 절반을 그 애들[→ 영래 패거리]이 씹씩해서 학교 앞 찜빵 가게에 맡겨 놓고 까먹고 있다고[→ 군것질을 하고 있다고] 했다. 얘기를 들은 다섯 아이들 중 누군가의—아마도 영래와 방향이 같은 기지존에 사는 아이가 그랬을—고자질에 의해서 폭행이 벌어졌다. 예의 메뚜기가[→ 담임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자습 시간에 영래가 무조건 동열이를 불러내어 “인마, 너 나한테 잘못된 거 없어?” 하고 따지면서 다짜고짜 발길로 걷어찬 다음 막대기로 그 애 머리를 찼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침을 삼키며 그 애가 머리를 움켜쥐고 죽는 소리로 우는 걸 바라보기만 했다. 종하가 옆에서 얼러 댔다. “짜식들 누가 돈을 때먹었냐, 애 맞은 거 담임한테 찌르면 알지?”[→ 영래 일당의 옳지 못한 행동을 소문낸 동열이가 그들에게 외려 폭력을 당한다. 다른 아이들은 폭력이 무서워 침묵한다.] 영래는 역시 화를 발각 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새까.” 종하를 욕박지른 다음에 우리에게 씹 웃어 보였다.[→ 자기 부하인 종하를 욕박지르는 것은, 동열의 폭로로 생겨난 아이들의 의심을 없애기 위한 술책이다. 종하가 폭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 자신은 아이들을 달래는 방식으로 반 아이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것이다. 영래의 교활함이 엿보인다.] “돈이 남은 건 맞다. 그걸 말이지 나는 다음에 쓸라구 남겨 뒀던 거야, 축구부를 만들기루 했지. 다른 반과 시합을 갖구 다음번엔 저쪽 오목내 학교 패들하구두 붙는다.” 아이들이 와글와글 손뼉 치는 소리.[→ 우리 반을 위해서라는 거짓 변명이다.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수많은 독재자들의 변명이 바로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는 말이다.] “그러구 애가 맞은 건…….” 영래가 공포에 질려 끓어앉은 동열이를 거만하게 내려다 보며 잠깐 사이를 두었다. “우리 반을 배반했기 때문야.” 은수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 영래 말이 옳다. 짜식이 배반자야.” 서부 영화에 많이 나오는 씹씩하고 멋진 얘기 같았으므로 교실의 이곳저곳에서 낱말 외우기나 하는 듯 아이들의 “배반자, 배반자” 하는 중얼거림이 퍼져 나갔다. 그들은 으쓱해진 느낌이었고 앞에 적발되어 끓어앉은 이 새로운 적(敵)을 새삼스럽게 관찰했다.[→ 동열이를 처벌하는 명목을 얻기 위해 영래 일당은 동열이를 학급의 내부 결속을 해치는 ‘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처럼 내부의 분열이나 다른 목소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적’을 만들어 내는 지도자들이 있다. 사람들의 적개심과 불만을 그 ‘적’에게 향하도록 돌리기 위해서다.] 영래가 아이들을 휘둘러보고 나서, “누구든지 고자질하거나 쭈군대두 좋다. 치만, 우리 반 애들 중엔 내게 그런 걸 알려 주는 좋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런 간신 같은 짓을 못 할 거야.”[→ 자신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거나 그런 분위기를 조장한다면, 다른 아이들이 밀고할 것이라는 얘기다. 당시의 독재 정권은 이처럼 동향을 몰래 감시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 두어,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서로 의심하게끔 함으로써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 참고 자료

작품 전체 줄거리

서술자인 ‘나’는 입대한 아우를 위해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년기 ‘국민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한다. 한국 전쟁 직후의 국민학교 상급반 교실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미군의 손에 키워진 영래라는 나이 든 학생이 신입해 온다. 영래는 게으르고 무책임한 담임 선생을 등에 업고 교실을 폭력으로 장악해서 스스로 급장이 된다.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른다. 처음에는 공부를 하지 않고 기상천외한 공놀이 등을 하게 해 주는 영래에게 열광하던 반 아이들도 영래 패거리의 횡포와 수탈이 점점 심해지자 점차 반감을 지니게 된다. ‘나’는 영래의 부당함에 분노하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불의를 방치한 채로 조용히 숨어 지낸다. 어느 날 교생 실습을 나온 여선생이 반을 담당하게 된다. 자신은 교생이므로 말하자면 ‘병아리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한 그녀는 아이들을 열성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면서, 급장 영래의 횡포 아래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서로 화합하여 올바른 학급을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려고 한다. 학급은 점차 영래가 조장한 폭력적 분위기와 갈등에서 벗어나고 반 아이들도 대체로 화합을 이루게 되지만, 교실의 지배력을 잃어 가는 영래 일당은 병아리 선생님을 헐뜯고 망신시키려는 음모에 혈안이 된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병아리 선생님을 모욕하는 쪽지가 교실을 돌다가 ‘나’에게까지 넘어온다. 병아리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그동안 쌓였던 분노 때문에 ‘나’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수업 후에 영래 일당의 추악한 행동을 정면으로 비난한다. 영래 일당은 ‘나’에게 폭력을 휘두르지만, 반 아이들이 한꺼번에 나서서 영래 일당을 저지하고 그 동안의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는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마음속에 내내 트라우마로 남아 있던 하수구 속의 어둠과 맞설 용기를 갖게 되고, 마침내 이유 없는 공포심에서 벗어나는 성취를 이루게 된다. ‘나’가 아우를 위해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불의와 공포에 맞서는 용기의 중요함이었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형이 군대 간 아우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쓴 단편 소설로 소수의 강자와 다수의 약자라는 이분법이 선명하게 전제되어 있다. 강자들은 소수이지만 강하고 조직적이며, 약자들은 다수이지만 무력하고 비겁하다. 이때 다수의 약자들이 강자의 폭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불의와 폭력에 대한 저항의 용기를 발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수의 결집된 힘으로 분출해 내는 것이다. 폭력과 불의는 오직 다수의 비겁과 무관심이 있는 곳에서만 강자가 될 수 있으며, 약자들이 저항의 용기를 발휘하는 순간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에 놓여 있는 작가의 메시지이다.

시대 배경과 창작 의도

이 소설의 작품 속 배경은 한국 전쟁 직후이지만, 작가가 이 소설을 쓰고 발표한 시간은 1972년이다. 그 시기는 독재 정권의 횡포가 정상적인 헌법 질서를 무너뜨려 한국 사회가 부정의와 혼란에 빠져 들어가던 때였다. 1969년에 독재 정권은 스스로가 만든 헌법을 스스로 파괴하면서 불법과 폭력으로 ‘3선 개헌’을 꾸며 내고, 1971년에 박정희를 3선 대통령으로 만든다. 이 소설이 발표되고 나서 약 9개월 뒤에는 그나마의 헌법 질서마저 마음대로 정지시키고 자기들이 초헌법적 권력자로 군림하는 유신 체제를 선포한다. 이 서간문 형식의 소설에서 서술자인 ‘나’가 불의와 폭력에 굴하지 않고 맞서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는, 이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중대한 의미를 얻게 된다. ‘나’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대상인 ‘아우’는 서술자 자신을 포함한 그 시대의 모든 꺾박받는 민중이었을 것이다.

소설의 우의적 의미

작가가 저항의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쓸 수 없는 시대였으므로 이 소설은 국민학교 교실 속 아이들의 이야기라는 틀에 정치적 통찰을 담은 우의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표면적 이야기		우의적 의미
국민학교 교실		당대 한국 사회
영래 일당		군부 독재 권력 집단
반 아이들	→	민중
괴롭힘·갈취	떠올림	폭압적 통치·이권 독점
서술자와 반 아이들의 저항과 시위		독재 정권을 몰아내는 저항과 혁명
서술자의 깨달음과 성장		민중의 자각과 민주 사회의 성숙

- # 핵심 정리
- 1) 갈래 : 단편 소설
2) 성격 : 교훈적 성격
3)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아우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이다.
4) 주제 : 불의에 저항하는 약자들의 연대

